

# 안동중친회 운영위원회의 개최



△권재주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동중친회(회장 권재주)는 지난 7월21일 안동중친회관에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상례행사가 있는 후 권재주회장의 인사에 이어 회의에 들어가 8월 25일 오전 10시에 안산유원지에서 복회를 개최기로 의결하고 폐회했다.

(권혁세 기자)

# 한국외교사 전시관 여는 전 駐독일대사 권영민씨

한국의 현대 외교사를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외교사(外交史) 전시관이 24일 충남 아산에서 개관됐다. 전시관 건립은 외교관 출신인 권영민(權寧民·66) 전 주(駐)독일 대사가 추진해왔다. 권 전 대사는 6일 "퇴임하기 직전, 국민의 상당수가 6·25전쟁을 미국에 의한 침략(比)이라고 믿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 외교교사로 전시관을 건립해,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알려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외교사료관 설립은 쉽지 않았다. 당초 권 전 대사는 퇴임 직후 고향인 충남 아산의 자신의 땅에 전시관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아산시에서 너무 외진 곳이

라 사람이 찾아오기 어려우니 시(市) 소유의 땅에 건립하자고 제안했고, 아산시 내 소규모 역사(驛舍)에 전시관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하지만 경제성 등의 이유로 건립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권 전 대사는 우여곡절 끝에 아산시 배미동 환경과학공원 내에 한국외교사 전시관(157㎡)을 건립하기로 확정됐다고 했다. 외교 전시관에는 1943년 한국의 독립 보장을 선언한 이집트 카이로회담에서부터 최근까지 한국 외교의 발자취가 담길 예정이다. 전시관에 전시되는 외교 문서와 사진들은 권 전 대사가 40년 가까



△권영민(전 독일대사)

이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선배 외교관이나 지인들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을 공식 방문, 파독(派獨) 광부들을 격려했을 당시의 독문 및 영문 연설문도 전시될 예정이다. 그는 항일 운동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미국에서 발행한 공채(公債)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2012.8.7조백진기자 인용)

# 정간공(靖簡公) 권 희(權僖) 선생 역사탐방

2012년 7월 30일 월요일 10시경 고양향교(高陽鄉校)와 전국 씨족협회(氏族協會) 주관으로 유림들이 경기 고양 덕양 성사동 사근절 안동권희(安東權僖) 선생의 묘역을 역사탐방으로 견학 하고자 하였으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지 못하고 유림회관에서 권 희 선생님의 연력과 기로사시(耆老社始) 그리고 정간공의 기록을 권정택(權貞澤) 기로회장(耆老會長)의 강의로 설명하고 정간공 실기 한질을 정간공 종중에서 기증하였다. 강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검교의정부좌정승(檢校議政府左政丞) 겸 수문전대학사(修文殿大學士)로서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이 되었다. 태종 3년 1403년 3월에 기로소의 후기영회로 전향재주소로 개편 되었는데 공이 또 그 수좌가 되었다. 태종 5년 1406년 12월 19일에 한양에서 졸하니 87세였다. 3일 동안 조화를 폐하고 태상왕과 금상이 사재하고 시호를 정간공으로 내렸다.

권 희 선생의 묘는 원당 전철역 남쪽의 성사동 불당골 마을 안에 진한국대부인 한씨의 합장되어 위치하고 있다. 묘소에는 묘비, 장명등, 상석, 고석, 2쌍이 있으며, 최근의 오석의 비석과 망주석1쌍 문인석 2쌍을 그 양쪽에 갖추어 있다. 봉분은 분래 고려조. 조선조초기에 보편적인 사각묘였으나 현재는 새로이 단장하여 봉분앞에 세워진 화강암 재질의 묘비는 높이 83cm폭 33cm,두께14cm 윗부분은 다듬어 마름모꼴로 만들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묘비는 조선 초기에 간혹 세웠는데 보기 어렵다. 묘비의 앞면에는 '조선정승정간공 권희희도 진한국대부인 한씨장'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뒤면에는 '특별 세조 31년(1449)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묘비의 우측으로 높이가 127cm에 있는데 화장은 두 개로 육개석의 조각 수법이 뛰어난 작품이다. 구조는 사각의 각형 육개석을 얹은 형태이다. 장명등의 반대편에는 또 다른 석물이 보이는데 장명등이다. 정화하지는 않지만 현재 서있는 장명등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원래의 장명등이었을 것이다. 비슷한 부재가 고려 공양왕에서 이르고 영가군으로 개봉되었다. 혹은 이색은 관서 작에 있을 때 공을 집으로 방문한 시에서 '성재의 계자로 풍의도 아름다운데 임친의 얼굴 그리하며 눈물을 뿌리네 금가루 이개어 재목을 쓰니 민간의 대장경을 모심 그래에 드물다.' 하였다. 불교를 심신하여 64세에 여주 신록사에 장경각을 짓는 것을 크게 돕고 오대산에 관음 암을 중창하는 데에도 의뎡의 단가가 되었다. 74세

에 조선이 개국 되었고 이듬해 태조 2년 11월에 개국원종공신의 녹훈을 받고 검교문하시중에 영가부원군이 되었다. 1394년 8월에 태조가 한양으로 전도하고 기로소의 전신인 후기영회가 창시 되었다. 공이 거기에 수좌로 올라 화상이 영수각에 계영 되었다. 태조 7년 1398년 윤 5월에는 왕명으로 새 자전 남문에서 완손 개복 신 초례를 베풀었다. 정종2년 1400년6월에는 관상사사로서 치사 하였는데 이해11월에 태종이 즉위 하자 공의 관직이 회복되어 대광보국(大匡輔國) 승록대부(崇祿大夫) 검교의정부좌정승(檢校議政府左政丞) 겸 수문전대학사(修文殿大學士)로서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이 되었다. 태종 3년 1403년 3월에 기로소의 후기영회로 전향재주소로 개편 되었는데 공이 또 그 수좌가 되었다. 태종 5년 1406년 12월 19일에 한양에서 졸하니 87세였다. 3일 동안 조화를 폐하고 태상왕과 금상이 사재하고 시호를 정간공으로 내렸다.

권 희 선생의 묘는 원당 전철역 남쪽의 성사동 불당골 마을 안에 진한국대부인 한씨의 합장되어 위치하고 있다. 묘소에는 묘비, 장명등, 상석, 고석, 2쌍이 있으며, 최근의 오석의 비석과 망주석1쌍 문인석 2쌍을 그 양쪽에 갖추어 있다. 봉분은 분래 고려조. 조선조초기에 보편적인 사각묘였으나 현재는 새로이 단장하여 봉분앞에 세워진 화강암 재질의 묘비는 높이 83cm폭 33cm,두께14cm 윗부분은 다듬어 마름모꼴로 만들어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묘비는 조선 초기에 간혹 세웠는데 보기 어렵다. 묘비의 앞면에는 '조선정승정간공 권희희도 진한국대부인 한씨장'이라 표기되어 있으며 뒤면에는 '특별 세조 31년(1449)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묘비의 우측으로 높이가 127cm에 있는데 화장은 두 개로 육개석의 조각 수법이 뛰어난 작품이다. 구조는 사각의 각형 육개석을 얹은 형태이다. 장명등의 반대편에는 또 다른 석물이 보이는데 장명등이다. 정화하지는 않지만 현재 서있는 장명등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원래의 장명등이었을 것이다. 비슷한 부재가 고려 공양왕에서 이르고 영가군으로 개봉되었다. 혹은 이색은 관서 작에 있을 때 공을 집으로 방문한 시에서 '성재의 계자로 풍의도 아름다운데 임친의 얼굴 그리하며 눈물을 뿌리네 금가루 이개어 재목을 쓰니 민간의 대장경을 모심 그래에 드물다.' 하였다. 불교를 심신하여 64세에 여주 신록사에 장경각을 짓는 것을 크게 돕고 오대산에 관음 암을 중창하는 데에도 의뎡의 단가가 되었다. 74세



△정간공묘소



△문관석장명등

곳은 모습으로 보이며 팔공에서 수평선 위쪽으로 급경진 손의 처리가 되어 있다. 묘소 주위에는 이밖의 최근에 세워진 문인석과 신도비등이 배치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권 희선생묘는 이시기의 만들어진 무덤들에서 많이 보이는 풍자적이라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유적이라 할 수 있겠다. 묘소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사근절 성지산에 유좌로 합림 회선생묘는 이시기의 만들어진 무

덤들에서 많이 보이는 풍자적이라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유적이라 할 수 있겠다. 묘소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사근절 성지산에 유좌로 합림 회선생묘는 이시기의 만들어진 무

# 조율이시(棗栗梨柿)에 담긴 뜻과 진설(陳設)

추석이 다가 온다. 풍성한 가을의 수확을 맞아 서양은 추수감사절, 동양은 추석(秋夕)마지로 한해의 농사를 결산하며 조상에 제향(祭享)을 올린다. 예를 올린다.

제사 상차림에 대표적인 예법 홍동백서(紅東白西)법과 조율이시(棗栗梨柿)법을 택하여 예를 올리는 가정이 많다. 그중 조율이시에 대하여 그 뜻을 새겨본다.

대추(棗) 대추나무는 암수가 한 몸이고, 한 나무에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데 꽃 하나에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나서 꽃이 떨어진다. 헛꽃은 절대로 없다. 즉,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지식을 넣고 죽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추는 통 주여 절개를 뜻하고 순수한 절개와 자신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이다. 대추는 붉은 색으로 임금님의 용포를 상징하고 씨가 하나이고 열매에 비해 그 씨가 큰 것이 특징이므로 왕을 뜻한다. 왕(王)이나 성현이 될 후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의미와 죽은 혼백을 왕처럼 귀히 모신다는 자손들의 정성을 담고 있다.

밤(栗) 밤나무는 땅 속에 밤들이 씨 밤 [생밤]인 채로 달려 있다가 밤의 열매가 열리고 난 후에 씨 밤이 썩는다. 그래서 밤은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것과 자기와 조상의 영원한 연결을 상징한다. 이런 이유로 밤나무로 된 위패를 모신다. 유아가 성장할수록 부모는 밤의 가지처럼 차츰 익어오라고 '이제는 품안에서 나가 살아라 하며 밤송이처럼 썩 버려주어 독립된 생활을 시킨다는 것이다.

밤은 한 송이에 씨알이 세 톨이니 3정승(領議政, 左議政, 右議政)을 의미한다.

배(梨) 배는 껍질이 누렇기 때문에 황인종을 뜻하고, 오렝에서 황색은 우주의 중심을 나타낸다. 흙의 성분(土)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민족의 긍지를 나타낸다. 배의 속살이 하얀 것으로 우리의 백인민족에 빗대어 순수함과 밝음을 나타내 제물

로 쓰인다. 배는 씨가 6개여서 육조(吏曹 戶曹 禮曹 兵曹 刑曹 工曹)의 판서(判書)를 의미한다.

감(柿) 풍 심은데 풍나고 팔 심은데 팔이 나는 것이 천지의 이치인데 감(棗栗梨柿)법을 택하여 예를 올리는 가정이 많다.

감의 씨앗을 심으면 감나무가 나지 않고 대신 고욤나무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3-5년쯤 지났을 때 기존의 감나무를 잘라서 이 고욤나무에 접을 붙여야 그 다음 해부터 감이 열린다.

감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워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데는 생각이 잘못 깨서 접붙일 때처럼 아픔이 따른다.

그 아픔을 겪으며 선인의 예지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나무는 아무리 커도 열매가 한 번도 열리지 않는 나무를 꺾어 보면 속에 검은 신이 없고, 감이 열린 나무는 검은 신이 있다.

이것을 두고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그 만큼 속이 상하였다 하여 부모를 생각하여 놓는다고 한다.

감은 씨가 8개여서 8방백[8도 관찰사(觀察使), 8도 감사(監事)]를 뜻한다. 8도 관찰사가 후손에 나오라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이 제사상의 주된 과일인 대추, 밤, 배, 감이 오르는 것은

이들이 상서로운, 희망, 위엄, 벼슬을 나타내는 전통적 과일이기 때문이다. 제상(祭床)의 앞 열에 올려 놓는 과일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요즘 포도나 수박등을 올리는 가정은 생각해 볼일이며 조상의 공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자손 된 당연한 도리로서 대대손손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전통이다.

아울러 제상(祭床) 차림의 표본(韓國전례원)을 소개한다.

- 진설절차(陳設節次) ① 집사자 앞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5열로 진설한다. 1열은 심과와 조과의 과일류 2열은 포, 해, 채소의 반찬류 3열은 육방, 어방, 소탕의 탕류 4열은 어전, 육전, 어적, 육적, 등 전류와 적류 5열은 잔대, 시집, 반, 갹, 편, 먼류 \* 3열과 4열을 바꾸어 진설도 한다.

② 신위를 정면으로 향하여 집사자의 오른쪽을 東으로 왼쪽을 西로 삼는다.(神位之左 生人之右가 東向)

③ 진설에는 합설(合設)과 단설(單設)로 구분한다.

④ 음양(陰陽)의 이치를 따라 천신물(天產物)인 적, 탕은 陽이고로 양수인 1,3,5,7의 홀수로 쓰고 지산물(地產物)인 과일, 채소 등은 陰이고로 음수인 2, 4, 6, 8의 짝수로 재수의 가지수를 정한다.

\* 제례종선조(祭禮從先祖) 선조때부터 내려온 예식에 따른다.

## 진설용어(陳設用語)

용어	한글	해석
左脯右醢	좌포우혜	포는 왼쪽, 시혜는 오른쪽
魚東肉西	어동육서	물고기종류는 동쪽, 육고기류는 서쪽
東頭西尾	동두서미	고기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生東熟西	생동숙서	생채소류는 동쪽, 익힌 채소류는 서쪽
左麵右餅	좌면우병	국수는 왼쪽, 떡은 오른쪽
茅東蕙西	모동희서	모시는 동쪽, 퇴주그릇은 서쪽

### 별세

## 農叟 權寧夏 본원 부총재 別世

본원 전례위원장인 農叟 權寧夏 부총재(예전·좌·윤공파 34世)가 7월6일 오후 9시 숙환으로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74세. 공은 다년간 노동서원 관리보존 위원장으로서 卍門 유지·서원관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고

대한 성품과 사랑과 우애로 상봉하술하면서 전통의례 제의례(祭儀禮)에 밝아 權門 享禮와 문사에 공헌하였으며 卍門은 정의롭고 가례에 해박한 별을 잃었으니 슬프고 슬프도다. 삼가 윤공파 34世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조문객이 참례한 가운데 28일 3일장을 경북 예천군 호명면 내신리 선영에 안장했으며, 유족으로 미망인 진성이씨와 3남2녀가 있다. <편>

### 단신

▲권진택씨(남강공종희 도유사)가 지난 8월 13일 본원에 '남강공실기' (10권)을 기증했다.

▲권보아의 오빠 피아니스트 권순환(22)씨가 최근 서울 SAC아리랑을 본관에서 진행된 서울종합예술학교 음악예술학부 피아노과 겸임교수로 임명됐다.